



- 제27회 주안예만남
- 주안에라이프 종강식
- 선교지 탐방
- 교육부 / 목장 소식

## 감힌 형제들에게 ‘소망의 빛줄기’



### ■ 특집/ 주안에호프 사역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사역으로 부르시고 주안에호프(총괄 팀장: 조명휘 집사) 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기위해 현재 33명의 팀원들이 교도소 방문, 중보기도, 편지교류와 신앙서적 배송 등의 문서사역과 재정적 후원으로 36명의 형제, 자매들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 이예스더 기자 |

#### 1. 방문사역

한 달에 두번 1시간 거리에서 4시간 반의 거리까지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제한된 만남과 교류가운데,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11면에 계속>

## 선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 ■ 특집/ 3개국 선교지 탐방

최근 몇개월간 글과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던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지켜보며 직접 만남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었다.

4명으로 구성된 주안예교회 선교지 탐방팀(조용대 장로, 전호선 은퇴장로, 공태용 피택장로, 윤영섭 피택장로)은 지난 5월 1일 정오 LA공항을 출발 거의 24시간이 걸리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

펜을 향했다. 팀원들은 기내에서 미리 준비한 7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프로필과 현지 실태 자료를 다시 숙지하고 현지시간 밤12시에 프놈펜에 도착, 공항 인근 호텔에서 첫날을 묵었다.

#### 5월 3-4일(캄보디아-프놈쓰루잇)

대학생 때 단기선교 중 캄보디아 선교의 꿈을 꾸며 한국에 돌아가 6년간 신학교 공부와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와 사역하는 서진원(장미) 선교사를 만났다. <8면에 계속>

| 조용대 기자 |



선교사들의 발, 스쿠터 타고 이동 중인 이선진 선교사 부인과 자녀들

■ 교사감사회

5월 2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IC Kidz 와 Joy, 요계벳 선생님을 위한 식사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쁜 데코와 정성 가득한 음식, 크립스프와 함박스테이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동영상과 무엇보다도 나이 많은 4분 장로님의 찬양과 율동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수고를 다 위로 해주시는 것 같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3번이나 곡이 반복되는 동안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외워서 보여주신 그 준비와 노력에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 강진영 집사 |



■ 찬양팀, 미디어팀 연합 회식

5월 21일 주일 오후에 교회 페티오에 모여 찬양팀과 미디어팀 식사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

예배를 도우며 매주 함께 봉사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를 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선민 피택권사님은 서로를 좀 더 알고, 더욱 하나된 지체로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사정도 알고 기도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더욱 하나됨으로 찬양에 임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나눠 주셨다. 함께 모이고 준비한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영적 전쟁이 많은 예배 봉사지만, 우



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 미

디어팀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공동체로 교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류명수 기자 |

■故 이방걸 장로 추도예배

1년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천국으로 떠나신 고 이방걸 장로님의 1주기 추도예배가 지난 토요일인 5월 20일, 주안예교회의 친교실에서, 장로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엄숙하게 드려졌다.

1년 이라는 세월이 어색할만큼 아직도 교회 구석구석 마다 그 분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음을 느끼며, 서로가 오직 자신만의 느낌이 아님을 나누면서 그분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움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제27회 주안에만남

## “축복의 공동체,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지난 4월 30일(주일) 2부 예배 후에, 27번째 주안에만남이 101호실에서 있었습니다.

새로이 주안예교회에 출석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교회의 목회 방향과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듣고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동역자 되어 뛰고 달리기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새가족국에서 준비한 만찬을 맛있게 먹고 난 후, 성재영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박찬경 전도사의 찬양연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서먹했던 분위기는 이내 사라지고 점점 가까워져 가는 화기애애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어서 주안예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경과 역사를 최혁 목사를 통해 들을 때 참석하신 15분의 성도들은



한껏 진지해지고 또 많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비전과 주안예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을 듣노라니 듣는 모든 분들의 속이 시원하고 명확해져서 모두가 주안에 일꾼으로서 뛰고 달릴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같은 날 주일예배를 통해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받고 주안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

온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통해 주안예교회를 출석하게 된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점이었고, 그런 성도들을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신 성도님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먼저 와서 저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예라이프 종강

## 즐거움과 보람, 12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2023년 3월 1일에 시작된 주안예라이프는 12주간에 대장정 끝에 5월 23일로 종강식을 가졌다.

총 19개 클래스, 21명의 강사들이 수고하여 주었고 김영희 주안에 대장금 국장을 비롯하여 약 25명의 주방팀, 방송팀, 공태용 주안예라이프 국장과 총책임 사역자이신 이미란 전도사님께서 섬겨 주셨다.

팬데믹이후 처음 개강되었던 2022년 가을학기는 아쉽게도 7주간의 강의시간으로 인하여 발표회가 생략되는 바람에 몹시 아쉬웠는데 올해 불학기 종강식은 주안예교회 본당에서 성대하게 발표회 겸 재롱잔치를 열어 모두를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다.

한편 친교관에서는 편물, 미술, 한지공예, 서예반 등의 작품들이 한쪽 벽에 전시되고 있었으며, 주안예교회 본당에서의 발표회는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실버 트리오의 사랑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각 과목마다 탐과 노력의 흔적이 배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20여명이 넘는 스트레칭 교실의 발표회는 멋진 스트레칭과 우아함이 함께 공존하는 운동으로 가슴이 찡하고 먹먹한 음악이 한몫 하였고 한다.

발표회가 끝난 후 벨리에서 가장 맛있고 정성과 사랑이 담겼다고 소문난 식사시간이 제공 되었는데 매주 감탄을 하면서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너

무 아쉽고 8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고 타교회 교인들은 한결같이 말씀 하셨다.

일년 내내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소원을 뒤로한 채 서로 건강하기를 기도 하겠다는 허그를 여기 저기서 보며 아쉬운 방학에 들어갔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을 학기에 만나요~

| 임용자 기자 |

■ 새가족 글/ Terry Kim

## 정성 다한 섬김, 이웃사랑이 넘치는 교회

팬데믹 상황이 아무될 무렵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예배를 더이상 집에서 못보시겠다고 하시며 교회를 정하시고 가시겠다고 하셨다. 미국교회를 다니던 나는 난감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한국교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내가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어머니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는 권사님을 통해 주안예교회의 전도사님과 연락을 하고 전도사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버스까지 보내주셔서 교회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다. 갑작스러웠지만 너무 감사했다. 어머니께서 교회를 정하셨으니까 제가 라이드만 드리면 되겠다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회 버스만 고집하셨다. 그리고 연로한 어머니께서 혼자 주안예교회를 다니셨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치않았던 난 4월초 부



터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주안에 교회에 왔다.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섬김의 손길을 느꼈다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는 주차 안내원들은 고개를 갇게 숙이고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 앞에서 주보를 주시며 맞아주시는 봉사자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마음에 와 닿는다.

새가족담당 장로님의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성을 다해 교회에 대한 소개와 또한 궁금한 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시며 최대한 편안하게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는 앞치마를 두르신 목사님의 봉사자들께서 마치 최고급 음식점을 방불케한 아름다운 장식과 음식을 마련하시고 손수 서빙을 해 주셨다. 새가족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서로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목사님과 새가족 식구들은 마치 오랫동안 잘 알고지내던 이웃같이 웃고 즐기며 교제를 나누었다. 온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심을 느꼈다. 감사하고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뻐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말씀안에 거하는 교회 또한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가는 자리

꽃피는 봄에 만난 분은 바로, 주안에 예배를 활짝 피게하는 미디어국의 팀장 이승태 집사님입니다.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 늦은 오후, 부활절예배 리허설로 분주한 예배당에 누구보다도 먼저 오는 사역국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시작해서 오디오, 자막, 녹화, 음향, 조명 등을 꼼꼼히 챙기므로 리허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주안에 미디어 사역국' 입니다.

2018년 주안예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집사님은 예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30년이 지나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생사를 오고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의 찬양가 사처럼 많은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디서든지 섬김의 삶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여 집사님의 섬김으로 하나님님이 아닌 집사님 자신이 드러날까 염려가 된다고 하지만, 예배의 시작 전부터 예배의 마지막 찬양이 끝 날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게 미디어국입니다.

■ 이달에 만난 사람/  
이승태 집사 (미디어 사역국)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나가시기까지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팀장님을 다른 성도님들은 결코 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니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나눔,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집사님의 겸손 앞에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제 집사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지금처럼 미디어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안예교회의 한 지체로써 바라움기는 집사님의 영훈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이성은 기자 |

## 다양한 모든 문화체험 · 한국어 실력도 쑥쑥

### ■ 종강식

2018년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코비드 기간을 포함 올해 6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주안에한글학교는 LA 한국교육원에 정식 등록된 교육원으로 한국 재외 동포 재단에 등록되어 있다.

이제는 주안에교회 식구외에도 주변 커뮤니티와 한국어에 관심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레벨에 따라 나뉜 6개의 클래스에서 다양하고 깊이있는 배움을 이어가고있다.

지난 20일 이번학기 모두 33명의 학생, 10명의 TA들과 가르치느라 수고한 선생님들과 리더쉽이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일년을 되돌아보며 그간의 모든 과정과 노력을 격려하는 종강식을 개최하였다. 다음 가을학기는 클래스가 더 확장되어 한글을 더 능숙하게 구사하고 깊이 알아갈수있도록 더 높은 반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특별활동을 좀 더 세분화하여 글짓기반,



미술반, 연극반, K-pop반 등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커리큘럼을 원하는 반에서 학기동안 꾸준히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구상중에 있다.

앞으로도 주안에한글학교에 학부모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 봄소풍

원래 소풍은 ‘거닐다’, ‘노닐다’는 뜻의 소(逍)와 바람 쐬다는 뜻의 풍(風), 두 글자로 이루어졌으니, “바람 쐬며 논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년간 학교공부에 이어 주일에 한글공부까지 열심히 하느라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뒤로하고 꽃바람 가득한 바람을 쐬이며 놀 수 있도록 주안에한글학교에서는 제2회 봄소풍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한글학교 학생 외에도 함께 참석을 원하는 학부모님과 아이들도 함께 하여 더 풍성하고 의미있는 시간이되었다.

국민체조로 막을 올린 봄소풍은 짝짓기, 2인3각 등 다양한 게임 그리고 소풍의 백미, 보물찾기로 이어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의 관심과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양손 한가득 선물 보따리를 받은 아이들의 입가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났다. 단 하루였지만, 이 하루가 그들에게 유년의 소중한 행복한 찰나가 되길 그리고 한국인으로써의 주체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주안에한글학교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문화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이현영 기자 |

### ■ 어린이주일

5월 7일 어린이주일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귀한 말씀과 함께 과학실험 이벤트가 있었다.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수 있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키즈와 같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씀도 배웠다.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수 있길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는 마무리가 되었다.

예배가 끝난 뒤, 특별 게스트로 Cho



Simon 집사가 방문해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실험을 해주었다. 터지지않는

풍선실험, 좁은 입구 안으로 계란 넣기 실험, 빛나는 야광 라바 램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등, 서로 만지고, 만들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실험이 길어져 중간중간 차례대로 옆방에서 제3권사회 권사님들 주체로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었다. 실험을 하느라 배가 고팠는지 아이들 얼굴에 함박꽃이 피어났다.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도시락은 계란과 소시지, 야채와 과일 등으로 정말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엽고 감쪽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어린이주일'이 되었다. | 이성은 기자 |

■ EM May House Invitational

## Gendered Fellowship

This month's EM house invitational was different from previous months. Instead of all gathering in one place, the men went to Paul Yang's home while the women went to Laura Park JSN's home. The men took part in a meal of pork belly, grilling the meat along with kimchi, onions, and cheese with corn. "Iron sharpens iron, and what better way to do that than over some delicious samgyupsal?" states host Paul Yang. "It was such a rewarding and memorable time breaking bread and enjoying quality conversations with my EM brothers." And fellowship can only be stronger when done over such a socially-driven form of dining as Korean barbecue. On the women's side, the ladies of the EM ministry took part in an "Afternoon Tea Fellowship," bonding over a meal of tea, sandwiches, and pastries. "It was nice to have girl time with the girls, filled with



a lot of laughter," says EM member Su-Jin Chang. "I usually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everyone at church, so afternoon tea was a nice occasion to learn about everyone." Such a sentiment is what the EM ministry strives for among its members.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are less and less followers of Christ

everyday. It has never been more crucial that Christians stand together and help one another grow. This is why fellowship opportunities like the monthly house invitationals are so important. By growing closer and standing together in brotherhood or sisterhood, we grow as followers of Christ. Chris Kim

■ 학부모 세미나

## 가주 공립학교 성교육에 경각심 높여야

5월 21일 주일 오후 ICY 예배실에서 현재 미국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아가페 목장에 속하신 김영진, 유한나 집사님 부부의 강의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교육 현장의 실태를 알게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립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의 계셨고, 현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독교 유치원 운영을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집사님 부부의 말씀으로, 더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는 무관심은 이유가 되지 않는, 반 기독교적인걸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 세상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뱀이 간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던 무지개를 들고 아주 부드럽게,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랑에는 평등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계획적으로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안 중 통과된 것을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당연히 보호할 권리가 있는 부모의 권한을 다 박탈



시켜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아이가 원하는다면 인권보호 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부모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것을 인간의 법으로 박탈하는 위험한 대적이라고 봅니다.

당장 내 자녀의 일이 아니고, 내 집에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자녀들의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

모들도 잘 알고 교회와 협력하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기도로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절실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방조나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영적전쟁에 맞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에 대적하면 피하신다 라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후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영적싸움을 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주안에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현주 집사 |

■ EM Speed Dating

## Platonic Speed Dating

On Sunday, May 7, ICCC's EM ministry took part in a "speed dating" social activity. With the conclusion of Sunday service, members gathered on the second level of the church to partake in refreshments prepared by EM leadership. The rules of the activity were simple. Every member went around, saying their names, occupation, and a fun fact about themselves. There were many interesting facts. For instance, one member claims to have almost lit his house on fire on multiple occasions. Another claims to have broken both arms simultaneously. After everyone introduced themselves, a random member's name, occupation, or fun fact was picked from which the other members had to guess the other two "blanks." Members who guessed correctly were awarded gift cards to ICCC's very own Penial Cafe. The activity continued the following Sunday of May 14. This time, members went around and stated their names and favorite food. Oddly, many members, myself included, have an inclination towards sushi. Once everyone had a turn introducing themselves, members went around guessing a random participant's favorite food and fun fact from the previous week. Overall, this



was a fun activity and a good opportunity of fellowship as members got to know one another better. A special thanks to the leadership of the EM ministry, always going above and beyond in coming up with such creative and valued Sunday activities.

Chris Kim

■ EM Member Feature  
Justin Kim

## Gifted to serve God's Purpose

The EM ministry is fortunate to have many hardworking and committed members, serving for the glory of God and helping spread the good news to ICCC and beyond. This month, we get to know Justin Kim, a member of the EM praise team.

Coming to ICCC at the young age of 13, Justin has always had a talent and passion for music. "The first instrument I used to play was guitar," Justin explains. "It was mostly to prepare for a talent show at my old church. But later on I got into drums and bass and eventually picked up some scales and different kinds of finger-plucking techniques." And his musical aptitude is certainly reflected through his involvement in the praise team, regularly playing bass during Sunday service aside from also lending his voice from time to time.

Justin's musical talents have even taken him beyond the walls of ICCC. Having graduated from the LA Film School last year, Justin has many



long-term goals, including earning a master's degree from Berklee College of Music, working in the music industry as an audio engineer, and even getting into voice acting. "With voice acting, I feel like you can just be free in everything, just projecting yourself and getting into character," he explains. "I feel like it would be worth it to get into it and try it out."

Clearly, Justin's experiences both in and out of church speak for them-

selves. But this may be more than a passion. In fact, perhaps this was a destined calling. Justin explains that as a child, he had a ruptured eardrum that would have required an operation and leave him with permanent damage. But miraculously, as Justin puts it, within a few hours, he was completely healed. To this point, there is no explanation as to how he recovered. "I would call it a miracle but what else could you call it?" Justin says. "There has to be a reason my ears are still working."

Such blessings have led Justin to do great things in and out of church. And wherever his gifts take him, Justin looks forward to the journey ahead. But with everything he has achieved and everything that lies in the future, he credits it all to God. "I don't really know what path [God] is trying to lead me towards with the gifts He has given me," Justin explains. "But I do know I am super thankful for what he blessed me with." Chris Kim

##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1면서 계속〉 사역지는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시골 프놈쓰루잇으로 이곳에는 광주시에 세운 보건소가 위치해 있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이면 그 곳에서 성인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사님의 주요사역인 '희망나무' 기숙 사역은 프놈쓰루잇 출신으로 프놈펜에 나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10명에게 거처 공간을 마련해주고, 매일 저녁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장차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으로, 주일이면 이들이 고향인 프놈쓰루잇에 내려가 어린이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 5월 4-5일(캄보디아 캄봉짬)

캄봉짬지역은 수도인 프놈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 삶이 열악하고 봉제공장이나 일용노동을 통해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 가는 빈농지역으로 아이들까지 학교를 못 가고 후추 따러 산으로 들어가야하는 현실을 보며 탐방팀들의 마음이 무거웠다.

이선진 선교사 부부는 15년전 이곳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의 학교(유치원-고등학교)의 교사와 교무 담당을 하다가, 이젠 복음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현지 주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의 모습에서 때 묻지 않는 순수함을 볼 수 있었다. 선교사님과 가정교회의 현지 사역자(전도사)들을 위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했다.

### 5월 5-7일(캄보디아 씨엠틸)

캄봉짬에서 자동차로 6시간 걸려 앙코르사원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인 씨엠틸에 도착했다. 시내에 위치한 정연규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서 진행된 금요일예배에 참석했다. 현지인 전도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참석 인원도 50여명으로, 체계적이고, 교인들이 예배에 익숙한 분위기였다.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통성기도 후 현지인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 후 어린아이부터 어른



프놈펜 서진원 선교사의 '희망나무' 사역 학생들과 함께

까지 함께 성찬을 받았다. 주일 아침 예배는 씨엠틸 시내에서 15분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드렸다. 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에게 쌀 한부대씩을 나누어 주었다. 구제와 교육이 활발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5월 7-9일(타일랜드 치앙마이)

오영철 선교사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28년째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카렌족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베테랑 선교사, 겸손하고 열정적이며 카렌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었다. 450만이나 되는 규모가 작지 않은 카렌족은 주로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양국 국경에 산재해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전 인구의 15 퍼센트가 크리스천이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민족이다.

난민으로 떠났던 2세들이 자기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이곳으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대화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목장 소개 (밸리 21목장)

### 말씀, 기도, 밝은 에너지

늘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음식이든, 일이든, 나누어 도맡아 하고, 적극적이며,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목장~ 문성훈 안수집사와 문수경 권사가 목자로 있는 밸리 21목장이다. 거의 MP채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여서 교회까지 꽤 거리가 있음에도 매주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며, 목자이신 문집사님과 문권사님을 닮아 힘든기색 하나없이 얼굴에는 미소가 넘친다.

목자님께 여쭙어보니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다. 매주 기도제목을 그룹톡에 올리면 목원 전체가 같이 중보하고, 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



신 말씀을 목자가 정리해서 올리면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지고 큐티하며 한 주를 보내는 목장 이기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있는 목자, 그리고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목장되시길 소망한다. | 이성은 기자 |



## 사역은 달라도 복음의 열정은 하나

역시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엄경섭(차남준)선교사 부부는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있다. 아시아 동서선교센터 대표로, 소속 선교사의 역량 발휘와 네트워크 활동, 선교사 상담과 멘토링, 경력전환 지원 등이 주 사역, 부인 차남준 선교사도 강의와 상담, 선교사 케어 등에 헌신하고 있다.

### 5월 9-10일(타일랜드 우던타니)

구지완(김영주)선교사는 국제선교단체인 YWAM 파송 부부 선교사로 14년째 우던타니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을 통해 현지 학생들을 전도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다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태국 교역자 협의회의 멤버로 전도분과를 담당하는 등 현지에 잘 적응하는 모습, 함께 숙식하는 3명의 현지 간사들과 함께 일주일에 1,2회씩 캠퍼스 전도를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태국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 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하지만 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크리스찬으로 삶을 사는 비율은 극히 낮아 어떻게하던 그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 5월 10일(라오스 국경)

비자신청과 시간이 촉박해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한 두시간 거리인 태국 국경도시 우던타니에서 하요셉 선교사와 식사하며 3-4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당국의 감시와 주민신고 등으로 인해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 사역은 어렵다. 산업디자인 미술을 전공한 아내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치앙마이 카렌 신학교 학장(왼쪽 3번째) 과 오영철 선교사 (맨 오른쪽)

넓히고 있다. 대부분 아이들 예배가 없는 현지교회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셋업하고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도 주요 사역중 하나이다.

후기- 이번에 돌아 본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과 형편은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 열정은 한결 같았으며, 모두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해 편견을 갖고 과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다. 7명의 선교사들은 모두가 본인들의 사역지까지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준 주안예교회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해했다. 선교지와 이번 탐방팀을 위해 기도해 준 많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많은 땀을 흘리며 메뚜기처럼 뛰어다닌 vision trip 이었다. 돌아다니는 내내 오래전에 보았던, 제목도 기억이 나지않는 영화의 대사가 떠오르곤 했다. “어느날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 우느냐?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제자가 대답하였다. ‘그러면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스승이 물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대답하였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고를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에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수고에 눈물을 흘렸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내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선교팀과 대화하는 H 선교사

그 땅에 들어와 15년만에 차를 갖게 된 감격을 이야기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타고가는 차를 다시 둘러보았다. 내 눈에는 폐차장에 있어야 될 차 이건만!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가난의 기준을 쌀(먹을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지어 말했다. 그에게 1,000리얼(25센트)이 없어서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목이 메어 힘들어 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에게 1999년 부터 복음을 전하며 신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고개가 숙여졌다. 아이를 낳아서 결혼을 시킬 세월인데... 난민 자격으로 네

델란드로 떠난 아이가 복음을 배우고 전파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있었다. 국경의 충돌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도 복음을 배우며 전파하는 아이가 있었다. 모두가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나의 허연 머리털이 부끄럽기만 했다. 국경을 넘어와 우리를 만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장님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의 선조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보답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통해 믿음의 대물림을 볼수 있었다. 자신이 꿈꿔왔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두 무릎의 수술로 단념시키셨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는 자가 된 선교사님에게서 40대에서 볼 수 없는 겸손함이 있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주신 꿈이 있다. 이를 수 없는 꿈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가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 전호선 장로 |

■ 교도소 면회기

P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안에호프 사역팀이 토요일에 교도소를 방문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동참하게 되었다.

지금껏 교도소에 대해 아는 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유리를 사이에 놓고 면회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P형제를 방문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와서 CCI (California Correctional Institute)라고 하는 “테하차피” 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P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도착 후 서류 작성과 복장 검열을 걸쳐 면회장으로 들어간 후 지정해준 테이블에서 오랫동안 P형제를 기다렸다. 같이 가신 권사님과 함께 교도소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 닭고기 두 접시, 피자, 터키 샌드위치, 샐러드와 디저트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P형제를 보자마자 마치 아들을 안아주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꼬~옥 안아 주었다.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 왜 여기에? 그렇지...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종으로 억눌림을 당해 자유함 없이 원치않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 교도소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P형제가 이 곳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고,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느 곳도 무섭지 않고, “P형제도 여기에 있잖아요” 라고 하자 그의 얼굴 빛이 환해지면서 좋아했다. 우리

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같이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 좋은 나이에 한참 열심히 일하

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하나님은 P형제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 하였고, 형제를 사용하셔서 그 안의 New Creation Church 를 일으키시고, 찬양으로 인도하고, 다른 형제들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시고 계신다.

P형제를 보며 그 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회개하게 되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아서 이 세상의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뿐인데... 우리는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P형제를 성령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주야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

혹시 저처럼 나쁜 편견을 가지고 교도소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안에호프에 참여하셔서 한번만이라도 만나보시면, 그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라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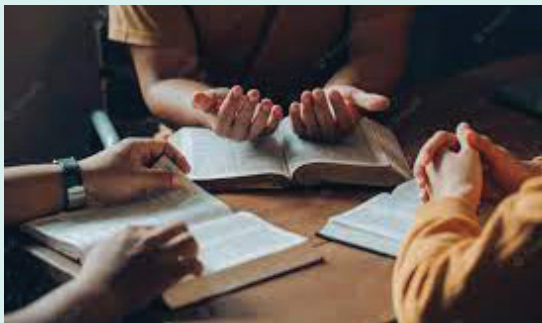
■ 재소자 간증

괴물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항상 교회안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은 목회자의 아들로써의 위치에 정해진 규정과 행동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고, 저의 부모님은 그러한 저의 모습에 항상 엄격하셨습니다. 십대가 되면서 저의 행동은 부모님의 기대에 빗나갔고, 학교를 떠나 갱에 가입하여 결국은 살인사건 관련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5년형을 받으며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없는, 전보다 더욱 반항적인 삶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만 보내지는 펠리칸 베이 SHU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의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괴물이 되어있는 자신을 깨달으며, 갱단과 교도소에서 쌓아온 저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는 이교도 신화로 생각했었고,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2017년 4월, 하나님은 제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지금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결국은 저의 생명을 드리는 행복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9년동안의 미련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도록 제 자신의 마음을 결박했던 모든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저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안에훈련 상반기 훈련 내역



주안에말씀 20기: 1/30 ~ 6/1  
월 저녁 반 & 목 오전 반, 2 그룹 총 45명 훈련 중

주안에삶 25기: 1/19 ~ 3/2  
1권 22명, 2권 8명, 3권 6명 총 36명 수료

주안에삶 26기: 4/27 ~ 6/8 총 27명 현재 훈련 중  
2권 20명, 3권 7명

주안에일꾼 5기: 4/27 ~ 7/6 총 8명 현재 훈련 중

마더와이즈 “회복” 인도자 훈련: 1/24 ~ 3/7 총 6명 훈련

마더와이즈 “회복” 4기: 4/25 ~ 6/6 총 12명 훈련 중

## 면회로, 기도로, 편지로 하나님 사랑 전한다

〈1면서 계속〉 주어진 면회 시간은 오전 8시반~오후 3시, 사역팀의 방문 시간은 주로 11시~3시까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여러 교도소를 돌아가면서 방문합니다. 면회시간동안 밴딩머신의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 2. 중보기도사역

팀원들이 교대로 월~금요일까지 매일 두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중보자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이 마치 우리의 죄악인듯 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 3. 편지와 카드사역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형량을 받은 친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가 없기때문에, 유일한 바깥 세상과의 접촉은 사람들의 방문과 편지입니다. 현재 가석방까지 긴 시간이 남은 친구들과 종신형을 받은 친구들에게 몇몇 팀원들이 편지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일년에 한 번,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생일에 카드로, 절기 카드로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 4. 문서사역(성경과 신앙서적 배송)

우리처럼 매주 예배와 찬양을 드릴수 없고 여러 종교가 섞여있는 환경가운데 있기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쉽게 다른



주안예호프 사역팀의 5월 정기모임은 전호선 장로님, 전미영 권사님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사역분배와 함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의 방문 소감을 나누었다.

종교에 미혹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기위해서 신앙서적과 말씀관련 문서사역도 같이 합니다.

### 5. 스토어 용품 구입과 패키지 후원사역

그 안에서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시간당 평균 25센트 이하)을 해도 배상금 50%를 제외하면 한 달에 20불도 안되는 페이를 받습니다. 도와줄 가족과 친척이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친구들이 술을 만들어 팔거나, 문신이나 무기를 만드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스토어 비용 또는 분기별 패키지 오더로 후원해줍니다.

### 6. 신학교 교재와 등록금 지원사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신학교 교재와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7명의 친구들의 신학교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친구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주안예호프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 목장 Life (밸리 11목장)

### '아내들을 위한 이벤트'

밸리 11목장은 이번달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 2023년에 50세 생일을 맞게 되는 4명의 피택권사님들을 위해서 목원 되시는 조민철, 이영인 집사님께서 맥으로 초대하시고, 손수 생일상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셨다. 조민철 집사님이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스테이크, 돼지갈비, 도토리묵, 전과 미역국등 너무 맛있었다고 대접받은 이선민 목사님과 윤세희 피택권사님이 사랑을 해 주셨다.

윤세희 피택권사님은 이웃을 섬기자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몇주째 듣고 있는데, 조민철 집사님 가정의 섬김이 무척 감동적이었다고 전해 주셨다.

| 류명수 기자 |



■ 음악산책/ 파랑새를 찾아서...

## 슈만, 좌절된 꿈과 새로운 성취

동화 '파랑새'에서 주인공인 티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 등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온 집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길렀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발견한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쇼팽이나 리스트처럼 기교가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공부했고, 심지어 기계장치를 직접 고안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악한 기계장치는 곧 그의 손가락을 망가뜨렸고, 피아니스트의 꿈은 좌절되었다.

꿈을 포기한 슈만은 음악잡지를 창간하여 편집장과 비평가로 활동한다. 인쇄업자로 자수성가한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책에 둘러싸여 성장한 덕분에 인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났던 슈만에게 어울리는 선택이었다. 작곡가로도 활동한 슈만은, '마치 음악으로 표현된 편지 시 같다'라고 평가받는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비록 열망했던 피아니스트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서 오늘에까지 이름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성경 말씀만을 골라 그것을 지표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나의 이웃으로 다가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 입맛에 맞는 성경 말씀만 좇으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구주 예수님은 이미 대문 밖에 기다려서 계시나, 우리의 아집과 무지함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으로 증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줄기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황성남 기자 |

## 6월 16일~28일 'VBS'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현재 교육부 선생님들은 6월 16-18일 까지 진행될 Vacation Bible School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의 주제 'Shine Jesus' Light'와 알맞게 선생님들과 교육부 스태프 그리고 EM/ICY 봉사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성심을 다해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VBS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께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 말씀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증인들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소채플 공사가 진행중인 지금

이 시점에서 주안교회 교육부에 부흥의 바람을 보내줄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 NEWSLETTER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